

맥주의 도시 샤프로

2013 년 8 월부터 샤프로시에서 독일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야미츠키 우리라고 합니다. JET 프로그램으로 샤프로에 부임한 소식을 알릴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는 제가 느낀 샤프로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독일사람과 같이 맥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샤프로는 맥주로 유명한 도시이므로 맛있는 맥주를 좋아하는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맛있는 샤프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샤프로에 온 8 월, 샤프로 오도리공원에서는 독일처럼 큰 규모의 비어가든이 개최되었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커다란 맥주잔으로 들이키는 생맥주가 제일이지요. 동료들이 열어준 환영회에서는 비어가든의 맛있는 맥주를 맛볼 수 있어서 최고의 환영회가 되었습니다.

그 환영회 때, 샤프로와 독일의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맥주잔 크기는 500cc 가 많으며, 극히 드물지만 1,000cc 맥주잔도 있습니다. (샤프로의 자매도시인 원헨시는 1,000cc 맥주잔이 특히 많습니다.)



독일의 비어가든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커다란 맥주잔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까지 갔었던 일본의 술집과 다른 도시에 있는 비어가든에서는 대부분 작은 맥주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주로 유명한 샤프로는 다릅니다. 오도리공원의 비어가든에서도 500cc 맥주잔으로 맛있는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원헨 옥토버페스트에서 불리는 유명한 ‘축배의 노래’가 있습니다. 올해 샤프로시에서도 샤프로의 맥주 문화를 더더욱 널리 알리고자 ‘브라보 샤프로’라는 샤프로의 독자적인 건배 제의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9 월 13 일부터 개최되는 샤프로 오름페스트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새로운 건배 제의 노래 ‘브라보 샤프로’를 불렀으면 합니다. Youtube 에 ‘브라보 샤프로’ 프로모션영상이 공개되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샤프로 오름페스트에서 함께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 삿포로 오텀페스트 홈페이지 >

<http://www.sapporo-autumnfest.jp/>

< 브라보 삿포로 PV (Youtube) >

<http://www.youtube.com/watch?v=TTaXjxUDHdw>